

폐자원 재활용... 온실가스 14만톤 감축

하림, 탄소중립 실천 ESG경영 일환 증기 100만톤 생산... 나무 100만 그루 보호 효과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신재생에너지시설 구축을 통해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일 하림에 따르면, 최근 하림과 이보엔텍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폐목재를 활용한 증기 100만톤 생산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림은 지난 14년 12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인 친환경 바이오매스 기포유동층 보일러 시설을 구축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 하나인 벵커시유 대신 폐목재를 재활용한 바이오매스 고형연료를 사용해 폐기물도 줄이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도 대폭 낮췄다.

가동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100만톤의 증기를 생산하고 온실가스 약 14



하림과 협력업체인 이보엔텍이 폐목재를 활용한 증기 100만톤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만 톤을 감축했다. 이로써 대체되는 국내 목재자원은 약 21만 톤이며, 이는 나무 100만 그루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물론 지금까지 얻은 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는 덩이다. 한 마디로 목재자원 보호,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ESG 경영 실천이라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환경 분야 파일럿 시설 운영을 통해 R&D 투자를 계속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며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성공적인 정착 이후에 이를 다른 기업에게도 공유하며 사회적기업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은 수자원 보호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림은 2025년까지 공장의 모든 슬러지(도계 폐수 침전물)를 완전히 처리하는 '제로 웨이스트'를 목표로 제시했다. 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도입하고 환경부가 아쉽게 추진하는 '유기성 폐지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페이퍼는 지난 2일 설을 맞아 보육원, 경로당 등 총 15개 단체에 쌀, 선물세트 등 천여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에 사랑나눔'

전주페이퍼, 보육원·경로당 등 15곳에 생활용품 전달

전북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있다.

전북지역의 대표기업인 전주페이퍼(생산본부장 김경식)는 지난 2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했다.

보육원, 경로당, 인근마을 주민 등 총 15개 단체에 쌀, 선물세트, 김, 복사지, 노트 등 천여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전달했다.

전주페이퍼는 해마다 지역의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며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격 상승으로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사원들이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도움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주위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설날 추석은 물론 인근마을과 자매결연 행사 및 야유회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순기정 14세대와 결연을 맺고 매일 꾸준하게 지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설을 앞두고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 3곳에 600만원 상당의 지역에서 생산한 백미와 온누리상품권을 전했다.

전주상의, 선녀머중합복지관 등 3곳 600만원 상당 백미 등 전달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상섭)는 지난 2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등 도내 사회복지 시설 3곳에 600만원 상당의 지역에서 생산한 백미와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여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윤상섭 회장은 이날 전달식을 통해 "갑진년 설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도내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함께 동참하여 이런 나눔과 실천들이 모여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모두가 함께 여유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복지시설 지원은 물론 사랑의 연탄나눔, 노인복지관 봉사, 사랑의 헌혈행사 등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하여 매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한전 전북본부, 도내 전통시장 전력설비 안전점검 시행

전통시장 60곳·터미널 27곳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최근 서천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지난 1일 전주 남부시장 등을 찾아 한전의 전력공급 설비뿐만 아니라 고객설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에서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14개 지역의 전통시장 60곳과 터미널 27곳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력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1일 전주 남부시장 등을 찾아 한전의 전력공급 설비뿐만 아니라 고객설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전선 및 전

주 등의 전력설비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변압기 등 설비 △배선불량 및 전기기기 접지상태 등으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신속한 보수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한전은 상인연합회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였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시장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겨울철 전기요금 절약방법 안내와 함께 핫팩을 제공하여 상인과 시장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옥기 기자

곽도연 농진청 식량과학원장, 취임 첫 현장행정지 부안 계화면 시설감자 재배 농가 방문

곽도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이 부임 후 첫 현장활동 일환으로 부안군 계화면의 시설감자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곽도연 원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수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금선 은선 신종 감자 재배 현황을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고품질농업연구소, 전북농업기술원, 부안군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 관계자들, 시설감자 재배 농가들과 함께 부안 지역 감자 재배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안군 감자 특구를 조성하

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한 2기작 가을감자 신종종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시설감자 하우스에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수확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장비를 점검했다.

곽도연 원장은 부안군 시설 감자 재배와 관련한 방해 대책, 시설감자 스마트관 도입을 위한 기술적 문제점, 시설감자 재배 후 토질 향상 등을 위한 신속작물 도입 방안, 시설감자 수확량 예측 및 현재 유통 동향 등 다방



곽도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이 부임 후 첫 현장활동 일환으로 부안군 계화면의 시설감자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면에 대해 논의한 후,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촌·농수산업자 실익증대

농신보 남원권역보증센터, 올해 신규보증 2100억원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원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남원센터, 센터장 이성로)는 농촌지역의 경제발전과 농림수산업자의 실익증대를 위해 올해 약 21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으로, 농신보 남원센터는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지역(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내 농협은행, 농·축협 및 산림조합의 총 7개 관할금융기관에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농신보 남원센터는 작년 한 해 2016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올해도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보증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신보 남원센터 이성로 센터장은 "금년 한 해도 농신보 남원센터 직원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보증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